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지역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¹

양승훈

일시: 2025년 6월 16일 7:30-9:30pm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방 청년은 문제적 존재로 대두됐다. 기존에도 취업에서의 차별, 저임금 일자리, 지방대 출신으로의 생활 경험 등 오프라인의 통념, 온라인 담론이 결합한 형태의 지방대생에 관한 설화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제정임·곽영신 편, 2021). 결국 지방 청년의 문제는 학계의 관심부터 정치적 기획까지, 모두가 얽혀 떠오르게 된 것이다.

주요 논의 내용

- 지방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
- 그 관점에 관한 해석의 위험성과 지방 청년이 겪는 '일의 문제'
- 청년 노동시장 구축에 실패한 비수도권의 도시와 산업

지방 청년이 어떻길래? 지방 청년에 관한 세 가지 관점

사회학 연구는 '복학왕의 사회학'을 발굴하던 시기부터 지방 청년을 본격적으로 담아냈다

¹ 이 강연은 양승훈,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부키, 2024); 양승훈,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지방대생의 일경험과 구직", 『경제와 사회』 2021년 가을호(131호), 10-54; 양승훈, "지방 청년 이야기하기: 주체 설정, 구조의 변동과 딜레마", 한국사회학회 2023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을 기초로 축약해 작성했습니다.

(최종렬, 2018). 특정 지역 대학생의 고유한(혹은 이상한) 습속을 살펴본 문화연구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지역 문화에 대한 해석을, 1990년대부터 '히트 상품'이었던 청년 세대론(신세대, 88만 원 세대, N포세대, MZ세대)과 포개어 '지방 청년'이라는 문제설정을 만들어 냈다(양승훈, 2021). 지역균형발전을 대의로 삼는 정치세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제조업 구조조정과 산업도시의 쇠락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지방 청년을 주요한 주체로서 등장시켰다(양승훈, 2019).

각 해석은 발화 주체의 위치에 따라 지방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3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희생자·생존자다.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서 열위인 지방대에 다니는 지방 청년을 통계적 위치로서 자리시키는 해석으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을 하는 열위의 존재들로 바라본다. 두 번째는 겸연쩍은 주체다. "복학왕의 사회학"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하는 주체나 공정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수도권의 주체성'이 아닌 가족의 행복을 가치로 두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고 살겠다는 지방 청년의 목소리를 '성찰적 겸연쩍음'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지역의 아방가르드와 일꾼이다. 지역에는 '대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류석진·조희정·정현미, 2021; 기화서·이미나·손애숙·손진수, 2022; 배문규·최민지, 2022). 숨어 있는 지역의 아방가르드를 찾거나 유치하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로컬 콘텐츠' 사업이나, 대안 운동을 발굴하려는 연구의 시도 모두를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본다.

지방 청년에 관한 해석의 위험성과 그들이 겪는 '일의 문제'

이러한 지방 청년에 대한 해석들은 연구자의 의도, 특정한 실천을 견인하려는 정치적 담론의 방향성 측면에서 복잡한 딜레마를 만들어 낸다. 먼저 희생자·생존자 서사로 지방 청년을 해석할 경우, 떠나려는 청년을 선구자로 볼 것인가, 배신자로 볼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두 번째 겸연쩍은 주체로 해석할 경우, '지방의 코스모폴리탄 계몽 프로젝트'가 해법이 되겠지만, 동시에 지방 청년들을 '무지한' 주체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주체로 해석할 경우, 누구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지방 청년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의 청년들과는 다른 어떠한 위치, 역량, 활동에 대한 가정을 가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리하

여 우리는 지방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즉 일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 노동시장 구축에 실패한 비수도권의 도시와 산업

공장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대부분 남학생에게 주어진다. 근로장학생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급여보다 높으므로, 남학생들은 공장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중공업 공장의 험한 산재부터, 지역의 공장들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목격하며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로는 잔업과 특근이 많아 별이가 괜찮지만, 실제 직업이 되면 오히려 임금은 줄어든다. 연봉으로 소급되어 임금이 정해질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 큰 공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방패' 안에서 정규직의 노동윤리가 천차만별이고, 힘들고 위험한 공정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맡긴 채, 간접직이나 작업 세팅만 본인들이 맡아 '태만하게' 일하기도 한다. 남성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터의 조직구조와 행위에 눈을 뜬다. 공장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다가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 도시에서는 '여성 커리어'의 확보가 어렵다. 괜찮은 일자리가 드물고, 임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경력단절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은 맞벌이보다는 외벌이로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외벌이로 한부모가정을 이끄는 여성에게 최악의 거주지가 된다.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기에는 전문직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수도권의 여성 전문직 일자리 역시 저임금이다. 또한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커리어패스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 딸들의 고용이다. 이제는 공과대학에서도 한 학과에 여학생의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가 많다. 산업도시들은 이들에게 아들들과 똑같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다음 세대가 등장하고 가사노동, 육아, 일에 대한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가치 부여는 점차 재편될 것이다. 비수도권의 대다수 도시와 산업은 지역 청년들의 고학력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지 못했다. 여성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결국 지방 청년의 문제는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지방 청년들의 '탈출'은 계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 레슬리 킨,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황가한 옮김, 열린책들, 2022.
- 앨버트 O. 허시먼(Albert O. Hirschman), 강명구 옮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나무연필, 2016.
- 양승훈,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오월의 봄, 2019.
- 양승훈,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청년의 일경험과 구직」, 『경제와사회』 131: 10-54, 2021.
- 양승훈, 「산업도시의 정상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와 공간분업」, 『문화과학』 112: 125-143, 2022.
- 양승훈, 「창원시 노동사 기초 자료 조사 및 구술 채록」, 창원시. (비간행), 2023.
- 제정임·곽영신 편,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오월의봄, 2021.
- 최종렬, 『복학왕의 사회학』, 오월의봄, 2018.
- 클라우디아 골딘, 김승진 옮김, 『커리어 그리고 가정』, 생각의 힘, 2021.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치학, 문화인류학, 과학기술학을 공부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경남 거제도 조선소에서 5 년간 일한 이후 15 년째 경남과 서울을 오가며, 산업도시와 제조업, 엔지니어와 지역 청년의 삶에 대해 고민한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오월의 봄, 2019)와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부키, 2024)를 썼고, 2020 년 한국출판문화상과 한국사회학회 학술상(저술분야)을 수상했다.